

■ 특특뉴스

제주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제공

제주항공이 장애인인 국내선 항공예약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앱을 통한 온라인 휠체어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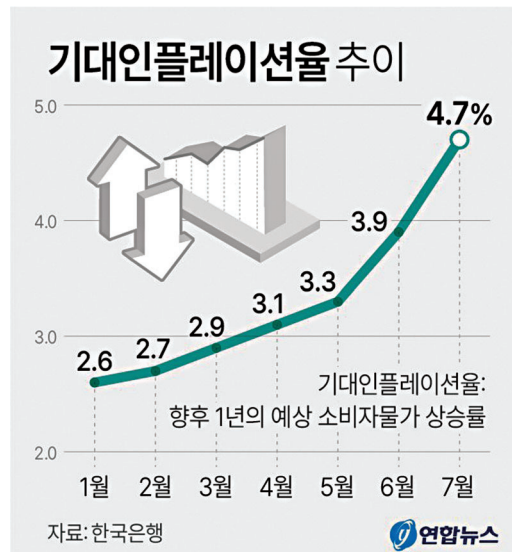
휠체어 예약서비스는 본래 기존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국내선 이용시 온라인에서도 휠체어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휠체어 예약서비스는 장애인 신분확인 예약승객에 한해 출발 48시간 이전까지 가능하며, 항공권 예매 완료 후 마이페이지 내에 휠체어 신청을 하면 된다.

서비스 취소는 출발일 24시간 전까지 하면 되며 장애인 신분확인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 그래픽 경제



7월 기대인플레이 4.7% 사상 최고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0.8%포인트(p) 오르며 4%대 후반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3.9%)보다 0.8%포인트(p) 오른 4.7%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전월 대비 상승 폭 모두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상승 폭은 지난달(0.6%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축하량 급감 채소 가격 치솟아

전년비 배추 3배·양파 2배 폭등

수입육 관세 철폐...채값은 미미

정부가 수입 소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철폐하면서 육류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섰지만 소비자 밥상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와 함께 소비하는 채소가 고온·무름병 등으로 출하물량이 줄어들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지난 20일부터 소고기 등 일부 수입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산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에 각각 10.6%와 16.0%씩 부과됐던 관세를 10만 톤 분량 한정으로 철폐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도 정부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에 맞춰 가격을 최대 40% 인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했지만 서민들의 밥상 물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수입쇠고기 가격은 광주와 전남은 각각 28.7%, 25.2%씩 크게 상승했다.



27일 광주의 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에서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이 육류 가격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게 상승했다.

관세철폐 전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가격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품이 많은 소고기를 부담없이 소비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도 주로 육류와 함께 소비하는 채소 가격이 크게 치솟기도 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고기와 함께 밥상에 올라가는 채소는 광주지역 기준 전년도 대비 최대 3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배추(고랭지 10kg)는 2만4,000원으로 1년 전 7,850원과 비교해 약 3배 폭등했으며 양파

(15kg) 2만1,700원, 대파(1kg)는 2,460원으로 전년도(각각 1만950원, 1,170원)보다 2배 가량 올랐다.

또한, 청상추(4kg)는 4만600원으로 전년도(3만7,100원)보다 약 9%, 깻잎은 2만 8,600원으로 전년도(2만500원)보다 39% 이상 뛰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봄에는 기록적인 가뭄과 여름철 때 이른 폭염·장마가 겹쳐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마트를 찾아 온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한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박 모씨

(60)는 “소고기가 생각보다 저렴했지만 곁들여 먹을 채소를 구매하고 나니 전체 가격은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면서 “그래도 한정된 수량에만 적용한다니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구매했다. 두 번 먹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취생 김 모씨(26)는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 대중끼니를 때우게 서러워 오늘은 소고기를 먹어보려 했지만 야채값이 너무 비싼데다 소량으로는 판매하지 않아 포기했다”면서 “대가족들이나 먹을 수 있지 1인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정책 같다”고 토로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국세청은 27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광주국세청(청장 윤영석)은 27일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광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서별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와함께 '일하는 방

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갖고, 불필요한 업무 축소 및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구성원 상호간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코로나19 피해와 물가 불안 등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현금급조 조기지급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며 “비정상적·반복적 탈루 유형을 철저히 검증하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연수 기자

포장지 전문기업 디에스팩(주)

눈에 띄는 디자인 포장지는 곧 매출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옵셋 인쇄를 통해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OFFSET C18

무동판 인쇄

옵셋인쇄를 통한 동판비 절감

다양한 기성봉투

고민하지 말고 구매하세요

다품종 소량생산

비용, 재고 부담 절감

친환경 잉크

인체에 무해한 EB잉크사용

디에스팩(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로 70 (월전동 1250)
TEL : 062) 942-0000 dsp0011@naver.com

DS팩 QR코드

ECO 우리의 꿈 식품보다 더 깨끗한 포장지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품**은

포장지부터 달라야 합니다!

▲ 지퍼스텐딩 파우치

▲ 박스파우치

▲ 견수산물 / 농수산물 기성 봉

▲ 농수산물 기성 봉투 (일반형, 숨구멍)

디에스팩의 기술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은 합판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디에스팩에서 **친환경 EB잉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컷 사이즈의 제품을 합판하여 인쇄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고객님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